



#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O8 월 기도편지 2022

카카오톡 amorpaz10044 파라과이 595-971-320791 한국 010-3435-5563

파라과이 선교를 돕기 위하여 송금하실 분은 **하나은행 990-090818-605** 정금태 (GP사무실서 재정관리 Tel 02-443-0883) E-mail; [amorr1004@hanmail.net](mailto:amorr1004@hanmail.net)

기독교예술유초중고등학교 facebook:colegiocristianoarte Homepage:amorpaz.org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 facebook:facultapresbiterianadelparaguay

## 감사한일

- 1)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 2)어려운 중에도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성도는 청소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입니다.



파라과이는 8월 달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설립일(8/15), 한국 광복 77주년 (8/15), 이민 57주년 기념행사(1965년 4월) 어린이 날(8/16) 있는 즐거운 달입니다. 새벽부터 마음이 들떠서 학교와 대문에 국기를 게양하고 조국 대한 민국의 남북 통일을 복음으로 통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 1.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어린이 날 전도 행사





**2.장로교 신학대학...2022년 2학기가 시작이 되어 교수와 학생들이  
영성훈련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2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패스 하였습니다.



신학교 졸업후 2년간 목회를 하고 강도사 고시를 치룬후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동안 Covi 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두명의 목사 안수를 파라과이 노회에서 안  
수하여 목회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땅 청소도 깨끗이 완료



### 3. 할렐루야 교회와 사랑과 평화교회의 어린이 주일 전도잔치를 하였습니다



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 10:00에는 어린이가 되고 지혜에는 아이들이 되라고 강론하고 각종 선물과 각종 과자와 초코렛과 빵을 나누어 주고 즐거운 풍선 파도타기를 하였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돈보기를 미국서 선물 받아온



것을 나누어 주어 기쁨이 한층 더 많았습니다

#### 4. 새로운 생명의 길 교회가 개척되다



두번째 개척했던 영광교회에서 자라났던 교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의 땅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여 방문을 하였다. 아스팔트로 6시간. 비포장 도로를 3시간 반 합 10시간을 달려갔습니다. 9개월동안 비가 오지 않아 빗물을 먹을 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그만한 인공 호수물을 길러서 먼지를 가라 앉혀서 식수를 사용하고 화장실은 퍼세식. 샤워는 엄두도 못내고 세수는 고양이 세수를 하고 슈퍼나 과일이나 주유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이지만 신학도 애향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려는 것이 기특하고. 교인들 집들이 너무 멀어서 자기 땅에 10Km. 20Km. 50Km 떨어져 있는 교인들의 집을 지어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배당은 9M X 12M 대지에 트라스 4개를 준비해 놓고 지붕 함석을 40장중 10장 준비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돌 시멘트 전기공사 등등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그 동네를 위해서 우물을 50-60m 정도 하나

파는 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전기는 설치되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샤워실.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밑에 볼트 조절하면 샤워물이 나오게 하고 그릇은 있는 대로 다 물을 받아 놓고 가스는 없으니 나무로 밥을 지어 먹는 참 정겹기는 하나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내 마음에 가슴이 여려왔습니다. 주로 물을 끓혀 꼬시도나 우유와 돌덩이 같은 빵을 식사하고 가운데 불을 피어놓고 예배를 드리며 밥을 먹기도 합니다. 가면서 빵 국수 과자 기름 설탕 등등 잔뜩 가지고 갔지만 과일과 야채를 좀 못사가지고 가서 못내 마음이 저렸습니다. 1993년 파라과이에 첫번째 세운 갈보리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을 다녀오려면 높은 좋은 차가 꼭 필요함과 낮은 차로는 두번 다시 못갈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여러가지 성경교재를 주며 다른 것 설교하려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읽어주라고 하며 설교집도 주고왔다. 앞으로 계속 신학교재와 설교집을 보내주려고 한다

## 5.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 1) 20 여년이 지난 건물이라 지금 보수공사를 할수 있도록
- 2) 6 개교회를 관리하는데 갈수록 인재양성이 너무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키워 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3) 복음적인 학교 선생들이 교육도 하지만 전도대상 어린이가 많아 지도록
- 4) GP 전체 대회(11 월)가 은혜중에 이루어 지도록
- 5) 연말까지 학교운영을 은혜가운데서 이루어 지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